

선진(先秦)시기 중국어 수량(數量)구조 연구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김진호* · 현성준**

〈目 次〉

1. 들어가며
2. 구성 성분 분석
3. 중심 성분과의 결합 관계 분석
4. 나오며

1. 들어가며

현대중국어에서 수사(數詞)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양사(量詞)와 결합하여 수량구조를 구성한다.¹⁾

중국어 수량구조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²⁾ 선진시기에는 다른 어법구조와 마찬가지로 현대중국어와 달리 그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띠고 있었다.

* 주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국어전공 교수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교수

1) 협의의 수량구조는 수사 양사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만을 가리키며, 광의의 수량구조는 앞에서 말한 협의의 수량구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양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2) 은상(殷商)시대 갑골문(甲骨文)에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 등의 숫자 계산 방법이 이미 생겨났는데, 이러한 숫자의 탄생은 상대 사람들이 사용한 숫자 계산 방법이 당시에는 비교적 풍부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薛培, 「古代漢語中數量詞的發展演變」 『語文學刊』, 2008.11 第22期, 116쪽 참조)

아울러 張玉金에 근거하면, 갑골문 자료에 일찍부터 수량구조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110-111쪽 참조)

이를 감안하여 선진시기 수량구조의 구체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선진시기 대표 언어 자료라 할 수 있는 『논어』³⁾를 그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수(량)구조와 중심성분 결합된 모든 예를 일일이 가려낸 후⁴⁾ 상세하게 분석하여, 『논어』 수량구조에 사용된 구성 성분 및 수량구조와 중심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성 성분 분석

본장에서는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 내의 구성 성분을 수사와 양사로 각각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사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 내에 수사가 사용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子曰：“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爲政〉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詩經)』 삼 백편의 뜻은 한 마디 말로 개괄할 수 있으니,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⁵⁾)
- (2) 子曰：“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八佾〉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周)는 은(殷), 상(商) 두 왕조를 근거로 하였으니, 얼마나 풍부하고 다채롭단 말인가! 나는 주를 따르겠다.”)

3) 楊伯峻(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0. 12 第2版

4)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선진시기에는 그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지는 않아서, 수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수량구조의 기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수사, 양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도 수량구조로 본다. 단, ‘聞一以知十’, ‘問一得三’ 등과 같이 중심성분과의 결합 없이 수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본문의 번역은 楊伯峻(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0. 12 第2版을 참고함.

- (3) 令尹子文三仕爲令尹，無喜色；三已之，無愠色。〈公治長〉
 (영윤(令尹)인 자문(子文)이 세 번 벼슬하여 영윤이 되었을 때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 번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도 섭섭한 기색이 없었다.)
- (4) 有君子之道四焉。〈公治長〉
 (군자의 도는 네 가지가 있다.)
- (5) 舜有臣五人而天下治。〈泰伯〉
 (순(舜)은 다섯 사람의 어진 신하가 있어 천하가 다스려졌다.)
- (6) 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泰伯〉
 (육 척(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수 있고, 백 리(里) 국가의 명맥을 기탁할 만하다.)
- (7) 予有亂臣十人。〈泰伯〉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을 두었다.)
- (8) 齊景公有馬千駟，死之日，民無德而稱焉。〈季氏〉
 (제(齊) 경공(景公)은 말 천 사(駟)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죽는 날에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함이 없었다.)
- (9) 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述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더 주어, 오십에 『역경(易經)』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 (10) 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先進〉
 (어른 5~6명, 아이들 6~7명과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논어』 수량구조 내에 사용되고 있는 수사는 구체적인 수량을 지칭하는 기수(基数)인 ‘一’, ‘二(兩)’,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四十’, ‘百’, ‘三百’, ‘九百’, ‘千’ 등 이외에, 개략적 수량을 의미하는 개수(概數) ‘數’가 있으며, 예문(10)처럼 두 개의 숫자가 연이어 사용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2) 양사

양사는 사람 혹은 사물 수량 단위를 지칭하는 명량사(名量詞)⁶⁾와 동작 행위 단위를 가리키는 동량사(動量詞)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선진시기 『논어』

6) ‘물량사(物量詞)’라고도 칭한다.

수량구조 내에 사용된 양사는 모두 다 명량사⁷⁾이며, 아래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개체(個體)양사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에 사용된 개체양사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1) 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學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 승(乘)의 나라를 다스릴 때, 일을 공경하고 믿게 만들며,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를 때에 맞게 해야 한다.”)
- (12) 三家者以雍徹。”〈八佾〉
(세 집안에서 옹장(雍章)을 노래하면서 제사 용품을 거두었다.)
- (13) 子曰：“作者七人矣。”〈憲問〉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람이 일곱 명이다.”)

예문(11)부터 예문(13)에 사용된 ‘乘’, ‘家’, ‘人’ 등이 개체양사인데, 이뿐만 아니라 『논어』의 수량구조 내에 사용된 개체양사는 ‘室’, ‘等’, ‘駟’가 있다.

(2) 도량(度量)양사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 내에 사용된 도량양사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4) 冉子與之粟五秉。〈雍也〉
(염유(冉有)는 다섯 병(秉)을 그에게 주었다.)
- (15) 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泰伯〉
(육 척(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수 있고, 백 리(里) 국가의 명맥을 기탁할 만하다.)

7) 동량사는 선진시기 자료 내에는 간혹 나타나며, 동한위진(東漢魏晉)시기에는 점점 많아지다가, 당송(唐宋) 이후가 되어서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 北京, 語文出版社, 2001, 208쪽 참조)

- (16) 夫子之牆數仞，不得其門而入，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子張〉
 (부자(夫子)의 담장은 여러 길(仞)이 된다.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면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풍부함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문(14)부터 예문(16) 중의 ‘秉’, ‘尺’, ‘里’, ‘仞’ 등이 『논어』의 수량구조에 사용된 도량양사이다.

(3) 시간(時間)양사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에 사용된 시간양사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7) 其心三月不違仁。〈雍也〉
 (그 마음이 오랫동안⁸⁾ 인(仁)을 벗어남이 없었다.)
- (18) 出三日，不食之矣。〈鄉黨〉
 (놓아둔 지 삼 일이 지나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
- (19) 三年之喪，期已久矣。〈陽貨〉
 (삼 년 상은 기간이 너무 오래다고 할 것이다.)

예문(17)부터 예문(19)에 사용되고 있는 ‘月’, ‘日’, ‘年’ 등이 『논어』의 수량구조에 사용된 시간양사이다.

(4) 용기(容器)양사

선진시기 『논어』 수량구조에 사용된 용기양사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9) 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雍也〉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서 지내는 것을

8) 원문 중의 ‘三月’을 ‘3개월’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楊伯峻의 『論語譯注』에서는 이를 ‘長久地(오랫동안)’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함.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위에 보이는 예문(19) 중의 ‘簞’, ‘瓢’ 등이 『논어』의 수량구조에 사용된 용기양사이다.

3. 중심 성분과의 결합 관계 분석

본장에서는 문장에서 수량구조가 위치하는 분포, 다시 말해서 수량구조와 전후 중심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량구조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사물의 수량 또는 동작 혹은 행위의 횟수를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선진시기 『논어』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그 수량구조와 중심성분 간의 결합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사성성분과 결합된 경우

선진시기 『논어』 중 중심 성분과 결합한 125개의 수량 구조 중에서, 명사성성분과 결합된 경우는 총 98개로 전체 중의 78.4%를 점유하고 있는데, 각각을 상세하게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數+名

이러한 구조에서 수사는 양사와 결합하지 않은 채, 직접 명사성성분 앞에 위치하여 물량(物量)을 나타냄으로써, ‘數+名’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논어』에 보이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公治長〉
(한 나라에 도착해서 또 말하기를, “우리 대부 최자(崔子)와 다를

- 바 없구나.”하며 떠나갔다.)
- (2) 定公問：“一言而可以興邦，有諸？”〈子路〉
 (정공(定公)이 물었다. “한 마디의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 (3) 夫子欲之，吾二臣者皆不欲也。〈季氏〉
 (부자(夫子)께서 하시려 하는 것이고, 저희 두 신하는 모두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 (4) 益者三友，損者三友。〈季氏〉
 (유익한 친구 세 부류가 있고, 해로운 친구 세 부류가 있다.)
- (5) 子曰：“尊五美，屏四惡，斯可以從政矣。”〈堯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미덕을 숭상하고, 네 가지 악정
 을 물리치면, 가히 정사를 돌볼 수 있다.)

『논어』 중에 보이는 ‘數+名’ 구조는 모두 66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성성분
 과 결합된 총 98개의 수량구조 중, 6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 數+量+之+名

수량사와 명사 사이에 ‘之’자를 사용하여 수량사와 명사를 분리시킴으로써, ‘數
 +量+之+名’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논어』에 보이는 예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6) 子曰：“由也，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不知其仁也。”〈公治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由)는 천 승(乘)의 나라에 그 병역과 군
 정을 다스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다.”)
- (7) 子曰：“求也，千室之邑，百乘之家，可使爲之宰也，不知其仁也。”
 〈公治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求)는 천 실(室)의 큰 읍과 백 승(乘)의
 집안에 채(宰)가 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
 다.”)
- (8) 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泰伯〉
 (육 척(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수 있고, 백 리(里) 국가의 명맥을
 기탁할 만하다.)

『논어』에 보이는 ‘數+量+之+名’ 구조는 모두 12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 성분과 결합한 총 98개의 수량 구조 중에서, 1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 名+數+量

명사성성분 뒤에 수량사가 위치하는 ‘名+數+量’ 구조가 『논어』에 보이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9) 崔子弑齊君, 陳文子有馬十乘, 棄而違之。〈公治長〉
(최자(崔子)가 제(齊)나라 임금을 시해했을 때, 진문자(陳文子)는 말 열 승(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그 곳을 떠났다.)
- (10) 雖有周親, 不如仁人。百姓有過, 在予一人。〈堯曰〉
(비록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해도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하며, 백성의 과실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갑골문에 이미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張玉金(2001:21)에 따르면, 갑골문에서는 수량구조가 명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오로지 명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었다.⁹⁾

『논어』에 보이는 ‘名+數+量’의 구조는 10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98개의 수량구조 중에서, 10.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4) 名+數

수사가 명사의 뒤에 위치하여 직접 물량을 나타내어, ‘名+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갑골문에 이미 나타날 정도로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¹⁰⁾ 『논어』 중에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1)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子路〉
(『시경(詩經)』 삼백 편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에 제대로

9)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21쪽 참조
 10) 薛培, 「古代漢語中數量詞的發展演變」 『語文學刊』, 2008.11 第22期, 116쪽 참조

해내지 못한다.)

- (12) 奪伯氏駢邑三百，飯蔬食，沒齒無怨言。〈憲問〉
 (백씨(伯氏)의 병읍(駢邑) 삼백 호를 빼앗았는데, 거친 밥을 먹으며 죽을 때까지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논어』에 보이는 '名+數'의 구조는 7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98개의 수량구조 중에서, 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5) 數+量+名

명사성성분 앞에 수량사가 놓이는 '數+量+名' 구조가 『논어』에 보이는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3) 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雍也〉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서 지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논어』에 보이는 '數+量+名'의 구조는 3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98개의 수량구조 중, 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 동사성성분과 결합된 경우

선진시기 『논어』 중 중심성분과 결합한 총 125개 수량구조 중에서, 동사성성분과 결합된 것은 27개로 전체의 21.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數+動

이 구조는 동사의 앞에 직접 수사가 위치하여, 그 동작을 설명하고 수식하는 동량을 나타낸다. 선진시기 『논어』에 나타나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4) 令尹子文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愠色。〈公治長〉
(영윤(令尹)인 자문(子文)이 세 번 벼슬하여 영윤이 되었을 때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 번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도 섭섭한 기색이 없었다.)
- (15)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憲問〉
(환공(桓公)이 제후들을 여러 차례¹¹⁾ 주지하되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管仲)의 힘이다.)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數+動'의 구조는 모두 13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27개의 수량구조 중에서, 48.1%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 數+量+動

동사성성분 앞에 수량사가 위치하는 '數+量+動' 구조가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6) 三年學, 不至於穀, 不易得也。〈泰伯〉
(삼 년을 배우고서도 녹봉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얻지 못한다.)
- (17) 齊人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微子〉
(제(齊)나라 사람이 가녀와 무희를 보내니, 계환자(季桓子)가 이를 받고 삼 일을 조회하지 않자, 공자께서 떠나셨다.)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數+量+動'의 구조는 모두 7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27개의 수량 구조 중에서, 2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1) 원문 중의 '九合'을 楊伯峻의 『論語譯注』에서는 이를 '多次地住持(여러 차례 주지하다)'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함.

(3) 動+數+量

동사성성분 뒤에 수량사가 위치하는 ‘動+數+量’ 구조가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 出, 降一等, 逞顏色, 怡怡如也. <鄉黨>

(나오시어 한 증계를 내려서서는 안색이 환해지며 편안해하였다.)

(19) 祭肉不出三日. <鄉黨>

(제사 지낸 고기는 삼 일을 넘기지 않았다.)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動+數+量’의 구조는 모두 7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성성분과 결합한 총 27개의 수량구조 중에서, 2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선진시기 대표적인 중국어 언어 자료라 일컬어지는 『논어』를 그 주요 연구 자료로 삼아, 이 중 중심 성분과 결합된 총 125개의 수량구조의 실례를 모두 추출한 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선진시기 『논어』에 보이는 수량구조의 특징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먼저, 그 구성 성분에 있어서, 사용된 수사로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기수 ‘一’, ‘二(兩)’,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四十’, ‘百’, ‘三百’, ‘九百’, ‘千’ 이외에도, 개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개수 ‘數’가 사용되었다. 『논어』 수량구조에서는 동량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명량사만 사용되었는데, ‘乘’, ‘家’, ‘人’, ‘室’, ‘等’, ‘駟’ 등의 개체양사, ‘秉’, ‘尺’, ‘里’, ‘仞’ 등의 도량양사, ‘月’, ‘日’, ‘年’ 등의 시간양사, ‘簞’, ‘瓢’ 등의 용기양사 등의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되어 진다.

다음으로, 중심 성분과의 결합 관계에 있어서는, 본론에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표1〉 『논어』 수량구조와 중심 성분과 결합 관계 분석표¹²⁾

명사성성분과의 결합 (98 / 78.4%)					동사성성분과의 결합 (27 / 21.6%)			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6	12	10	7	3	13	7	7	125
52.8	9.6	8.0	5.6	2.4	10.4	5.6	5.6	100

〈표1〉에 근거해서, 선진시기 『논어』에 나타나는 수량구조와 결합하는 중심 성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논어』에서 명사성 성분과 결합된 수량구조는 98개로 7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사성 성분과 결합한 수량구조는 27개로 21.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논어』의 수량구조는 명사성성분과 결합된 경우가 동사성성분과 결합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2) 명사성성분과 결합한 98개 수량구조의 예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수량구조가 명사성 성분 앞에 위치하는 ‘數+名’ 구조, ‘數+量+之+名’ 구조, ‘數+量+名’ 구조의 총 비중 합이 82.7%로, 수량구조가 명사성 성분 뒤에 위치하는 ‘名+數+量’ 구조, ‘名+數’ 구조의 총 비중(17.3%)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선진시기 『논어』의 수량구조에서 수량구조가 명사성 성분과 결합할 때는 명사성 성분 앞에 위치하는 것이 그 주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동사성성분과 결합한 27개 수량구조의 예를 분석해 본 결과, 수량구조가 동사성 성분 앞에 위치하는 ‘數+動’ 구조, ‘數+量+動’ 구조의 총 비중 합이 74.1%로, 수량구조가 동사성 성분 뒤에 위치하는 ‘動+數+量’ 구조(25.9%)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선진시기 『논어』의 수량구조에서 수량구조가 동사성 성분과 결합할 때도 동사성 성분 앞에 위치하는 것이 그 주요 방식이었음을 알

12) 〈표1〉 안에서, ①은 ‘數+名’, ②는 ‘數+量+之+名’, ③은 ‘名+數+量’, ④는 ‘名+數’, ⑤는 ‘數+量+名’, ⑥은 ‘數+動’, ⑦은 ‘數+量+動’, ⑧은 ‘動+數+量’을 나타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선진시기 언어 자료 중에서 오로지 『논어』만을 가지고 그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에 그 외연을 넓혀 동시대의 다른 언어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김보은, 「한·중 수량 표현의 통사적 특성 비교 연구」 『인문사회21』 9권 2호, 아시아문화 학술원, 2018.
- 김진호·현성준, 「상고(上古)시기 『孟子』 수량(數量)구조 연구」 『中國文化研究』 45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9. 08.
- 정소영, 「중국어 수량구조와 相의 관계에 관한 소고」 『건지인문학』 제8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 郭攀, 「古漢語“數(量)·名”二語序形式二論」 『古漢語研究』, 2001. 03期
- 劉月華·潘文娛·故鞏,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劉子平, 『漢語量詞詞典』, 內蒙古教育出版社, 1996.
- 薛培, 「古代漢語中數量詞的發展演變」 『語文學刊』 第22期, 2008.11.
- 楊伯峻(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0.12 第2版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 北京, 語文出版社, 2001.
- 王力, 『漢語史稿』〔王力文集 第九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8.
- 王世舜(主編), 『『論語』『孟子』詞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4.
- 王淑怡, 「『搜神記』數量結構研究」 『安康學院學報』, 2007.06期.
- 張先坦, 「『東京夢華錄』的數量詞」 『貴州文史叢刊』, 2002.02期.
- 張延俊, 「也論漢語“數·量·名”形式的產生」 『古漢語研究』, 2002.02期.
-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 儲澤祥, 「“名+數量”語序與注意焦點」 『中國語文』, 北京, 2001. 第5期.
- 崔雪梅, 「『世說新語』的數量詞與主觀量」 『成都大學學報』, 2002.01期.
- 黃高憲, 「『詩經』數詞量詞的用法及特點」 『福建論壇』, 1982.01期.

〈Abstract〉

A Study on the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n the 『*Lunyu*(*論語*)』 of the
Pre-Qin Days Chinese

Kim, Jin-Ho / Hyun, Seong-Jun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s the one of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Sino-Tibetan. In the Chinese history, From the Pre-Qin days to the Qing Dynasty, generally its location is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Noun. Just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that the latter is the more before the Qin-Han Dynasty and the former is the more after Middle Archaic Chinese.

This paper mostly examines the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n the *Lunyu*(*論語*) of the Pre-Qin days Chinese.

The aim is to summarize component and the relation between Numeral-Classifier structure and the Noun by analyzing the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n the *Lunyu*(*論語*).

There are four chapters in this essay.

Chapter I, General Introduction. This chapter introduce the object, the scope, the methods.

Chapter II is about “the Component on the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n the *Lunyu*(*論語*)”. It mainly discusses a component of the Numeral-Classifier structure in the *Lunyu*(*論語*).

Chapter III is about “the coupling method between Numeral-Classifier structure and the Central Component in the *Lunyu*(*論語*)”. It respectively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Numeral-Classifier structure and the Central Component.

Chapter IV, Conclusion.

Key words: Chinese History, Pre-Qin days Chinese, *Lunyu*(*論語*), Numeral, Classifier, Numeral-Classifier structure, Statistics

이 논문은 2020년 10월 5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